

9월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1:27)



밥만 먹지 않겠어!!

나눔의 기쁨을 알게된 네팔의 아이들은 이제 더이상 밥만 먹지 않습니다. 같이 함께 봉사하며 나눔의 기쁨을 알아가는 네팔의 아이들은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입니다. (3P)

Dail 네팔다일공동체

DAIL COMMUNITY OF NEPAL



사랑해요 네다일!

저이며시! 아름다운 네팔다일공동체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난 8월의 여름을 잘 보내셨나요?

낮에는 빨간색으로 물든 잠자리들이 푸른 하늘을 비행하고, 밤에는 선선한 바람이 부는것이 '가을'이라는 친구가 곧 올것이라고 미리 알려주는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9월 이라는 기간동안 몸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귀하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카트만두에 교회가 필요해요!

네팔의 두번째 도시인 포카라 빈민촌에는 다일교회가 있습니다. 포카라 다일교회에는 매년 교회를 찾아 교인으로 등록하는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어려운 이 네팔땅에서 포카라 다일교회를 찾고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것에 놀라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팔땅에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님들의 잦은이혼과 가정폭력 그리고 빈곤이 그들을 조여웁니다. 나이가 들어 열심히 돈을 벌해보지만, 그들에게 단 몇푼의 작은 돈이 손에 쥐어질뿐이고 그들의 마음에는 공허함만이 남습니다. 끝없이 그들의 신에게 소원을 빌고 기도를 하며 내일을 기약하지만, 그들의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은 문득 교회를 다니고 얼굴에 웃음꽃이 핀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저 호기심에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포카라 다일교회는 네팔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면 사랑으로 안아줍니다. 교회를 처음 방문한 네팔사람은 생전 처음보는 사람이 자신을 안아주고 기도를 해주며, 온몸으로 자신을 섬겨주는 그 모습에 많은 네팔사람들은 놀라며 마음에 감동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옛종교를 버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처럼 네팔의 교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팔의 총 인구중 기독교 비율은 1% 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팔다일공동체는 포카라 뿐 아니라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에도 다일교회를 건축하고자 합니다!

네팔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깊게 내려진 힌두교 신앙. 이제 그 뿌리를 뽑고 네팔 카트만두에 다일교회가 건축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복음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팔 카트만두에 다일교회가 세워져 그리스도의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포카라 다일교회

깊은산속가정예배

매 침례를통한새사람

푸른 언덕에 다일고아원

네팔다일고아원에 대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덕분에 네팔다일고아원에 우물공사(7월) 그리고 이번 8월에 잔디시공을 할수 있게되었습니다.

벌써부터 아이들이 잔디에서 뛰놀며 행복해할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다일고아원을 위해 항상 기도와 후원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픔이 지나간 자리에 피어나는 꽃같이, 아이들의 마음도 아픔을 딛고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일고아원의 아이들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도록 고아원의 생활에 행복과 자유를 누릴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신두팔촉 #다일고아원 #푸른잔디 #공사완료
#아이들행복상승 #뛰놀준비완료



밥만 먹지 않겠어!!

카트만두 밥퍼의 이른 새벽아침엔 아이들이 다일직원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퍼직원들을 섬겨주는 아이들의 작은손 하나하나가 그렇게 귀엽고 고맙고 사랑스러울뿐입니다.

밥퍼의 수백명의 아이들중 몇명의 아이들은 밥만 먹으러 오는것만이 아닌, 밥을 먹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여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이 그렇게 예쁠수가 없습니다.



물장난 치면서 봉사도 열심히~!!



설거지가 재밌다는 아이들 #수다

네팔다일공동체는 밥퍼봉사에 함께하는 아이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네다 일은 봉사하는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토요일날 밥퍼 봉사자 아이들과 모임을 가졌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이야기와 함께 작은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작은 선물 하나하나에 감동하는 아이들이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볼때, 한없이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네팔다일공동체 밥퍼의 아이들은 봉사의 기쁨, 나눔의 기쁨에 대해 알게되는 이 아이들이 훗날 성장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나눔의 기쁨을 전파하는 이시대의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교육의 장



선물받은 아이들

아이들에게 축복을

무더운 여름, 8월에 여러 단기팀들이 네팔다일공동체를 방문하여 주셨는데요, 네팔다일공동체를 방문하여 주시고 봉사와 후원으로 섬겨주신 단기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찾아와주시는 여러 단기팀들중에 인상깊은 일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평화교회 단기팀중 이성웅목사님(평화교회)은 아이들에게 밥을 나눠줄때 그냥 나눠주는것이 아닌,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마음을 다하여 아이들에게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축복을 하셨습니다.

"멋지게 자라야해" "튼튼한 아이가 되렴" "착한 아이가 되렴"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 "공부도 열심히"

밥퍼에는 수백여명의 아이들이 밥을 먹기위해 옵니다. 그리고 한사람 한사람에게 밥을 나누어줍니다. 계속되는 반복에 그저 말로만 아이들에게 "맛있게드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로 끝나는것이 아닌, 아이들에게 축복과 진심어린 응원과 격려와 사랑을 주었는가를 다시한번 생각해봅니다.

네팔다일공동체는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힘쓰고자 하며,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희망을, 격려를, 응원을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위해서 응원과 격려를 그리고 기도를 해주세요.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네팔 KCOC 장미희 소속 최정락 단원님께서 밥퍼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남양주 평화교회에서 밥퍼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찬양선교사 송정미 사모님께서 밥퍼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시흥)배곧좋은교회에서 밥퍼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오카리나 연주중



재건동산교회에서 밥퍼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네팔다일공동체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기도제목

1. 카트만두에 다일교회를 건축할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후원의 손길또한 열리도록 기도해주세요.
2. 다일고아원 아이들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도록 고아원의 생활에 행복과 자유를 누릴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3. 네팔 카트만두 빈민촌 지역에 29명의 아이들이, 포카라 빈민촌에는 66명의 아이들이 후원자님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네팔의 아이들을 위하여 후원자님이 되어주세요.
4. 네팔 카트만두, 포카라, 신두팔촉 지역의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건강히 자랄수 있도록 축복과 기도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Dail 네팔다일공동체
DAIL COMMUNITY OF NEPAL

후원계좌 : 국민 467701-01-299245
예금주 : (사) 데일리다일
다일공동체 홈페이지 : www.dail.org

다일공동체 홈페이지 : www.dail.org